



# '매미' 보다 강한 佛心

태풍피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



◇정도회는 17일 거제도 정신지체 생활시설 애광원에 구호품을 전달했으며(사진 위), 해인사 대종스님 60여명도 19일 합천군 용두면 일대 과수원과 하우스촌 일대에서 복구작업을 벌였다(사진 아래).

폭격받은 듯한 건물에 주민들 망연자실  
 '아름 같이 하겠다' 복구 손길 이어져  
 '루사' 때 참여 했던 봉사자들 다수  
 어려움 같이 하는 마음에 주민들 감사  
 중단·사찰마다 수재민 돕기 운동 전개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 200여명의 봉사자들이 16일부터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초속 60.0m라는 기록적인 강풍으로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겨놓은 채 사라졌다. 자취를 감춘 '매미' 뒤에는 127명의 인명피해와 4조 1687억이라는 재산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천재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만이 희망이다. 태풍 '매미'가 남긴 상처를 씻어내는데 불자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탁 트인 전망으로 인기를 누렸던 부산 송도 해수욕장 인근의 음식점과 숙박업소들. 태풍 매미가 지나간 후 이곳은 완전히 달라졌다. 코를 찌르는 악취, 여기 저기 나뭇잎은 오물 더미들, 폭격을 맞은 듯 부서져버린 건물들로 영업불능 상태에 있으며 옛 정취라곤 찾아 볼 길이 없다. 해변로를 따라 거닐던 연인들의 다정함과 관광객들의 모습대신 쌓여있는 쓰레기들과 부서져 나온 나무와 시멘트를 운반하는 대형 트럭들의 광음, 질퍽질퍽하게 흘러내리는 물, 복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인들과 봉사자들의 움직임들이 눈에 주춤 뿐이다. 가을 햇볕을 받으며 반짝이는 고요한 바다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아슬할 정도다.

16일, 17일 이곳을 찾은 조계종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지부장 이기표) 봉사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뉴스로 볼 때보다 직접 와서 더욱 처참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피해 주민의 손을 잡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나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망연자실해 있던 주민들도 봉사자들이 찾아오자 힘을 얻어 복구에 대한 의지를 새리게 되었다.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계종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는 17일에는 보현의 집 노숙인, 통도사부산포교원, 영불공양묘원, 불교자비원,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 부산불교연전기사회, 관음사 등 16개 신행단체에서 200명이 가까운 불자들이 봉사에 나섰다. 봉사자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인근 피해 일소로 배치됐다.

송도해수욕장 인근 60여 곳의 업소들은 완전 침수되었고, 해일로 상가 1층 건물은 대부분 부서져 형태가 남아있지 않은데다 위층까지 바닷물이 밀어닥쳐 모든 가재도구, 전자제품들이 바닷물에 젖어 무용지물이 됐다. 콘테이너 박스가 파도에 떠밀려와 1층 정면에 부딪혀 1층이 부서진 업소도 있고, 완파된 건물도 5동이나 된다. 어디서부터랄 것도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건물 안의 모든 물건들은 곧바로 쓰레기 더미로 향했다. 봉사자들에 의해 옮겨진 침대, 이불, 가재도구들이 쌓여 갔다. 버려지는 물건들 위로 업주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머물기도 잠시, 곳곳에서 주민의 지시를 기다리는 봉사자들이 있어 시름을 덜었다.

"절망 속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봉사자들이 오니 힘이 나고 웃음도 나오네요. 남의 도움을 받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불경기에다 태풍 피해로 영업마저 불가능해졌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는 마음이 있어 그나마 힘이 된다고 업주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봉사자들의 바람도 한결같았다. 자원

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오도심(47) 보살은 "현장과 보니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 작은 도움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며 흐르는 땀을 닦았다.

지난해 발족한 조계종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에는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 복구 현장에도 참여했던 봉사자들이 많아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됐다. 부산보현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 중 기술자들은 타일을 붙이고 시멘트로 내벽을 수리하는 봉사를 맡았다. 공사현장이 나가 돈을 벌고 있는 이들은 일당을 마다하고 봉사활동을 나섰다. 또한 부산불교연전기사회 회원들 역시 비번이 아닌에도 개인택시 영업을 중단하고 봉사현장으로 달려왔다. 백가지 이론보다 한가지 행이 귀중하다는 신념으로 달려온 이들의 정진은 봉사현장 곳곳에서 빛을 발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봉사자들이 긴 해변로를 수놓았다. 바닷물과 함께 휩쓸려와 1층을 가득 채운 모래를 퍼내고, 사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씻고 정리하는 등 사람의 손으로 가능한 일들을 열주 마무리해 가고 있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던 봉사활동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조계종 총무원장인 법장스님이 방문했다. 마산, 창원 지역의 태풍 피해현장을 돌아보고 피해주민을 위로한 후 부산을 방문한 법장스님은 "우리 민족은 힘줄수목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헤쳐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가졌다"며 "여러 불자님들의 공덕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조계종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는 송도해수욕장의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면 피해가 극심한 부산 강서구 녹산동과 마산 창원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이밖에도 전국 태풍 피해 복구 현장에 불자들의 봉사활동이 줄을 잇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7일과 19일 ~ 20일 2차에 걸쳐 강릉, 삼척 지역에 자원봉사단을 파견했으며 (사)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성숙)도 각 지구별 피해규모와 수해를 당한 회원들을 조사하고 봉사단을 모집 봉사를 펼치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는 불교사가 경주 일대에서,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이 20.21 일 양일간 봉화와 청도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벌였다. 부산에서도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가 언양, 강서구, 송도 등의 피해현장에서 분주하다. 또한 천태종 의 경우, 14일 전국 말사에 공문을 보내 전국적인 수재민 돕기 운동과 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은 17일 울산 중구 재해지역인 화성공원 일대에 니르바나봉사단 50여명을 파견 중구청의 복구장비를 지원 받아 긴급 봉사활동을 벌였다. 진각종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재의연급 보급 운동과 함께 부산, 대구, 경주 등 6개 교구청과 일선 심인당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태풍 '매미'의 상처가 깊다. 그러나 태풍의 상처와 고통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돌 아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는 불자들의 보현행이 부처님의 천수천안을 대신해 그 상처를 감싸고 있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더이상 절망은 없다. 이웃이 있기에..."**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나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국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베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